

기념사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2007년 4월 7일로 창립 50돌을 맞습니다. 편협은 격동의 시대였던 1957년 4월 7일 자유당 권력의 부당한 언론탄압에 맞서고 언론인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편협은 반세기동안 창립정신을 잊지 않고 한국의 언론자유 신장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와 소신으로 이 나라의 언론자유를 위해 정열을 바친 선배 언론인들에게 새삼 경의를 표합니다.

편협은 언론자유를 위한 투쟁 못지않게 언론의 품위와 지위 향상을 위해 애써왔습니다. 창립과 동시에 스스로 윤리강령을 마련하고 윤리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세미나 등을 통해 언론이 안고 있는 공통의 문제점 해결을 모색해왔습니다. 언론인들의 단결을 유도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모자람이 없지 않았습지만 항상 최선을 다짐해 왔습니다.

언론환경은 지난 반세기동안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권위주의 체제 시절 언론은 권력의 강압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언론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1차적인 존재



의미였습니다. 지금은 사회전반에 걸쳐 상당히 민주화가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언론 자유는 음으로 양으로 여전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강압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또 다른 형태의 탄압수단이 등장한 것입니다.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권력의 특정 언론거부 등이 그것입니다. 편협은 또 다른 형식의 언론재갈물리기 시도에 단호히 대처해 왔으며 앞으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편협이 지난날을 되새기고 또 다른 반세기를 향해 나아가는 이정표로 삼고자 '편협 50년사'를 펴냈습니다. 아쉬움과 안타까움, 환희가 교차했던 반세기를 모두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창립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부족한 점 있더라도 격려와 함께 또 다른 반세기를 향해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2007년 1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文昌克